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간통죄 폐지' 논란에 월드컵이 말한다.

##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단순한 말로 표현된 제7계명은 상당히 포괄적인 함의를 지닌 명령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가장 포괄적인 제1계명, 10계명과 함께 7계명도 십계명 가운데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명이 얼마나 포괄적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부터 생각해야 한다.

### 제7계명의 적극적인 의미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면 제7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성적 정체성과 성적 관계를 제대로 드러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만 드시려는 의도를 가지셨고(창 1:26),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창 2:18)임을 분명히 하시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창 1:27; 2:7, 18-22).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으로 남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남자로서의 특성("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남성성")을, 여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여자로서의 특성("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여성성")을 충분히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조차도 아직까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남성성(masculinity)인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여성성(femininity)인지 잘 모르고,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과연 하나님이 의도하신 남성성(男性性), 하나님이 의도하신 여성성(女性性)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남자는 하지 못하는 일인 아이를 낳는 것만이 여자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인지 묻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극치 상태에서는 아이 낳는 일이 없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중성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출산 이외에 남자의 남자로서의 특성, 여자의 여자로서의 특성이 출산이나 그것과 연관된 기능들과 상관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다만

이 땅 가운데서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탐구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비추어 남자는 하나님께 의도하신 남자답게, 여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여자답게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남성성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여성성의 진정한 모습은 부활 때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특성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극치 상태의 남성성과 여성성에도 다양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기 다른 남자들이 참으로 다르지만 모두가 참된 남성성을 드러낼 것이고, 각기 다른 여자들 역시 서로 다르지만 모두 참된 여성성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정한 통속적인 남성성, 통속적인 여성성을 생각하거나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심지어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늘 낙원에 있어도 남자의 영혼은 남자의 영혼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내고, 여자의 영혼은 여자의 영혼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낼 것이다. 중세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여성의 영혼은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덜한 영혼이 아니다. 모두가 동등한 영혼이지만 여성의 영혼의 독특성이 있고, 남성의 영혼의 독특성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몸의 형태에만 드러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의 모습을 잘 드러내되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 어떤 사람은 남자로서의 인간적 특성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서의 인간적 특성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남자로 창조된 사람들은 남자로서의 사람의 온전한 특성을 드러내고, 또 여자로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여자로서의 특성을 드러내려고 애써야 한다. 그렇게 자신의 인간적 특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의식하고 구현하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일은 어린아이들은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해야 할 일이며, 하늘에 있는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혼과 부활한 사람들로 할 일이다. 우리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드러냄은 인간으로 창조함을 받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총신대학교와 합동신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영국 St. Andrews 대학 신학부에서 조직신학 전공의 석사 학위(M. Phil.)와 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 함신 교수 외에도 연약 교회의 협동 목사로 말씀을 섬기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 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등의 기독교세계관 시리즈 책과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신경>, <광장의 신학>, <인간 복제, 그 위험한 도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책과 <개혁신학 탐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등 개혁신학 책을 내었다.

은 우리들의 고유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고 점점 중성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성경은 나이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남성성,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여성성의 나타남이 무엇인지를 잘 의식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에 부합한 활동을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들의 정체성을 잘 구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춘기 청소년들과 혼인 전의 청년들도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의 한 부분인 성정체성을 잘 의식하고, 앞으로 혼인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적인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순결을 유지하며 잘 준비해야 한다. 이것도 7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 적령기의 사람들은 이런 특성에 따라 서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 혼인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의 실현을 모든 측면에서 이루어야 한다. 함께 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심리적으로 하나 됨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하나 됨과 심리적 하나 됨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sign)와 상징(symbol)으로 물리적인 하나됨(육체적 하나됨)인 성적 관계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성적인 관계가 동물들의 짝짓기와 다른 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의식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제7계명의 적극적 함의이다. 그래서 성적 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허락되는 것이다. 혼인한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공동의 사명을 이루어 가고, 약속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를 받아 양육하는 은혜도 얻으며, 평생 서로 의지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며, 가장 가까운 친구를 얻는 등 여러 가지를 누리도록 축복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성적인 관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각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의식하며 드러내는 것의 한 부분으로 혼인 관계에서 영적, 심리적 하나 됨의 표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에 따라 성적 관계를 잘 누리는 것이 7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성적인 관계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도대로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부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람들을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독신(獨身)으로 있는 사람들로 분류하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과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순결과 단정한 생활이란 그저 성적으로 순결한 것뿐 아니라, 성적인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생각하고 사는 일을 포함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련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

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련 없이 그 사람과 혼인하여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 제7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후에 언급할 것들만 7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행위 전체가 7계명을 소극적으로 범하는 것이 된다.

### 제7계명을 적극적으로 범하는 일

그렇다면 제7계명을 적극적으로 범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혼인 관계 밖에서의 모든 성적인 생각과 말,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9문은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그리고 그것들에서 유혹하는 모든 것"을 언급한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모든 타락한 마음과 생각에 그대로 노출되어(롬 1:21-32) 온갖 성적인 범죄를 범하게 되는 데 그것을 막는 명령이 제7계명이다.

물론 이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혼인 관계 밖에서의 성적인 행동이다. 그것은 실제화된 "간음"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명백히 간음을 금한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 13:4)는 말씀 외에도 수 없이 많은 구절들에서 이를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어떤 형태라도 간음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하려고 애써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혼인 관계 밖에서의 성적인 행동만을 간음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을 아시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8)고 말씀하시며 타락한 인간들의 문제를 드러내셨다. 혼인 관계 외의 사람에 대해 마음속으로 성적인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과거 선배들은 "혼인 관계 밖에서의 모든 성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7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한 것이다.

우리 시대는 성적인 죄를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들에게도 깊숙이 침투했다. 우리 주변에서 성적인 일탈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에 더욱 기도하고 조심해야 한다. 성경은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데(렘 12:1-2),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 시대를 따라 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경계하며 기도해야 한다.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원칙에 충

실해야 7계명을 범하는 일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들과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1)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해야 한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에 대한 책들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런 세계관으로 세상과 관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리고 (2)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을 잘 누려야 한다. 그것을 위해 (3) 건전한 교회의 구성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며 제대로 된 가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세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지킨다고 볼 수 있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 역할을 하지 않고, 건전한 가정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교회의 지체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을 잘 지키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간음하지 말아야 할 더 큰 이유가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원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으며(고전 6:19)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묻기도 한다(고전 6:15).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간음도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강하게 도전한다(고전 6:15). 처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는 창세기 2:24의 가르침에 비추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며(고전 6:17) 따라서 창기와 합하여 한 육체를 이루는 간음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이 세상은 간통을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혼인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고, 그것에서 어긋나는 것은 모두 간음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규정하심에서 실천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성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는 변함이 없다. 더구나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주와 합한 한 영임을 생각할 때 그 어떤 간음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명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성적인 것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으며, 혼인한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임을 아주 분명히 한다.

### 동성애 문제와 7계명

그런 뜻에서 남성이 남성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급기야 성적인 관계를 갖거나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게 되고 급기야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이른 바 동성애 성향과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서 1장 26-27절을 잘 묵상해 보라. 그와 같은 성향을 타고 났으니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사실 그것은 동성애를 정당화하기 위한 자기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오늘날의 연구는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님을 상당 부분 보여준다.

나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금하신 것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적 성향과 동성애는 7계명을 범하는 성향과 행동의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죄악된 성향과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이 이를 인간의 현저한 악 중 하나로 논의하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만 7계명을 어긴 것처럼 취급하는 것도 옳지 않다. 동성애도 여러 가지 성적인 죄들 가운데 하나이다. 모든 성적인 죄를 다 심각한 죄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혹시 동성애 등을 심각한 죄라고 하면서도 그 죄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를 가운데 심각한 죄가 있으면 이 세상은 우리들을 경멸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경멸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경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혼인 관계 밖에서의 모든 성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7계명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적 성향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향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그런 성향이 실제화 되지(practice) 않도록 해야 한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히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다.

###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의도하신 삶은 "영적이며-심리적이며-육체적인 삶"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애쓰는 것이 7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는 가정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가 힘써 행할 일 중 하나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7계명의 적극적 의도를 더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과 자녀,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녀 교육과 가정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힘써야 한다. 그것이 7계명을 잘 지키는 길이다. 